

사랑으로 심령을 살리자

작성일: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작성자: 유서윤

[심령과 영을 깨우기 위해 저의 죽어 있는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슬피 기도하며, 죽어서 행한 것들을 회개기도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에 정성을 들여라.

사랑에 정성을 들여라.

사랑의 힘을 받아라.

사랑으로 회복하여라.

사랑으로 너의 심령이 깨어나라.

사랑으로 간절히 나를 찾아라. 불러라.

집중하여라. 간구하여라. 뜨거워져라.

내 신부야, 내 사랑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한다.

죽어 있는 마음도 살게 하며

죽어 있는 심령, 너희 영혼도 살린다.

네 선생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는 줄 아느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선생의 마음 중 가장 나랑 일체 된 마음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섭리사 많은 자들

선생의 사랑에 의심하는 자들 많다.

‘정말 나를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선생님은 재만 좋아해.

선생님은 누구(어떤 부서)만 좋아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너무 많다.

회복하여라.

아니다.

네 선생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1:1 사랑이다.

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선생의 사랑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

진정 선생은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성대로 너희를 사랑해 주며 살리고 있노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구원시키며

사랑으로 편지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쓰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너희를 관리하며 나에게 나아온다.

너희 선생의 사랑이 너희 영과 육을 살린다.

이번 주 말씀 너희 심령과 영이 살아나게

깊이 급히 기도하라 하였지?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너희 영혼들을 보고

슬픔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

너희를 향한 사랑의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정신 가운데 선생의 조건으로 나온 말씀이다.

진정 심령이 깨어 기도하길 바란다.

선생의 애타는 기도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깨어 기도하라.

깨어 회복하라.

사랑으로 회복하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 깊숙이 받아

너희 영혼을 사랑의 영으로 만들어라.

사랑이 아니면 사망이다.

사망으로 흘러가지 말아라.

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의 심령이 더욱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주니라.

내 신부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마음 알아주겠니?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느껴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진정 나와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자.

사랑의 대역사를 이루자.

사랑의 힘으로 일으키자.

사랑함으로 선생 살리자.

사랑하면 너희 선생처럼 기도해 준다.

사랑하면 너희 선생처럼 희생해 준다.

사랑하면 너희 선생처럼 깨어난다.

사랑하면 너희 선생처럼 승리한다.

사랑하면 너희 선생처럼

나와 함께 영원히 빛을 발하리라.

이 모든 것 사랑으로 운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자.
더 기도해, 더. 알았지?
언제나 지켜본다. 알았지?
힘내, 내 사랑아.
아직 멀었다. 알겠지?
그럼 안녕.
깊이 기도함으로 또 만나자.